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

Marital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in Aged Couple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김경신
시간강사 이선미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Kyeong Shin

Lecturer : Lee, Seon M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aged couples' marital conflict,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s' marital conflict, life satisfaction and those of wives, and to investigate effective variables influencing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the 218 couples over 60 years old living in Gwangju. Trained researchers interviewed the subject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with mean, sd, Cronbach' α , paired-t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AS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arital conflict scores of husbands and wives were lower than median and wives' marital conflict scores were higher than those of husbands. The average scores of life satisfaction were higher than median and Husbands achieved higher scores in life satisfaction than wives.
2. Husbands' marital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ose of wives.
3. Husbands' life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health, self-esteem, filial support, acquaintances' support, marital conflict. Wives' life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income, health, marital intimacy, fil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Lee, Seon mi,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Korea 500-757 Tel : 82-62-530-0320 Fax : 82-62-530-1329 E-mail: dreamlp@empal.com

acquaintances' support, marital conflict. Spouses marital conflict was significantly effective variable to wives' life satisfaction, but no significant to husbands'.

주제어(Key Words): 노년기 부부(aged couple),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I. 서론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99년 현재 남성 71.7세, 여성 79.2세로 1971년의 남성 59세, 여성 66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도 1960년에는 2.9%였던 것이 2000년에는 7.1%였으며, 2020년에는 약 13%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평균수명과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율의 증가 추세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2).

이러한 현상을 개개 남성과 여성이 아닌 가족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가족주기상 노년기가 점차 연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예전보다 노부부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만큼 노년기의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의 시간적, 노동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기이며 따라서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년기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신혼초기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손승영, 1997). 그러나 노부부의 이혼율과 가정폭력 증가 등의 현상은 오히려 노년기 부부관계가 더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재엽, 1998; 변화순, 1999). 노년기는 은퇴로 인해 부부 모두 주된 생활장소가 가정으로 바뀌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부부 상호간 접촉이 증가하고, 사회생활과 직업에 전념하던 남편들이 가정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김태현, 1998; 이신숙, 1997). 또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축소라는 문제를 갖게 되어 한정된 자원의 분배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사회적 관계의 폭이 좁아진 노년기에 부부관계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고, 따라서 노후를 얼마나 잘

보낼 것인가의 문제는 나혼자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때 노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 부부의 역동적 부부관계나 다양한 갈등 양상들이 생활적응이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생활만족도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체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데(김경애, 1998),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윤주, 1997; 김경애, 1998; 윤에스더, 1999).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성별, 수입,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등으로 나타났으나(김경애, 1998; 김지훈, 1997; 김유경, 2000), 노년기 부부의 다양한 생활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노년기의 연장으로 노인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노인 개인에게서 가족으로 변화하였고(Allen, Blieszner, & Roberto, 2000), 이런 변화의 현상으로 최근들어 노년기의 부부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강미선, 1991; 강주령, 1990; 김태현, 전길양, 1997; 김혜경, 1996; 전길양, 임선영, 1998)이 실시되었으나, 대부분 남편 혹은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부부관계란 부부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고려하면, 노년기 부부갈등에 대한 파악은 어느 일방이 아닌 두 사람 모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노인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의 부부간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관련 변인 및 부부갈

등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으로써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년기 부부가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년기의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노년기 부부의 갈등(개인특성 영역, 부부관계 영역, 공동생활 영역, 제삼자관련 영역) 및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부부집단간 차이는 어떠한가?
2. 노년기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의 부부간 상관은 어떠한가?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관련 변인, 노년기 부부갈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갈등이론과 가족갈등

갈등이란 흔히 관심이나 생각의 대립 혹은 불일치 등으로 정의되며(Klein, & White, 1996), 크게 변증법적 갈등이론과 구조기능적 갈등이론으로 대별된다. 거시적 측면에서 갈등을 파악하는 변증법적 갈등이론에서는 갈등을 이해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원을 들고 있는데, Marx는 자원이 풍부하다면 인간은 갈등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Weber는 권력갈등론을 제시하면서 갈등의 인식은 크게 권력과 이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권력관계에는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하는 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자아내는 관계일 수 밖에 없다(박영신, 1986). Marx, Weber와 달리 개인의 행동이나 상호작용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갈등을 분석한 Simmel은 갈등을 구조적 차원으로 보고 있다(Klein et al., 1996). 갈등이란 집단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며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한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집단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박영신, 1986).

갈등은 Marx와 Engels 이후부터 철학적 관점에서 고려되었고, 가족연구에 있어서도 그 개념이 적용되고 분석되어져 왔다(Klein et al., 1996). 변증법적 갈등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더 큰 사회의 과정을 반영하는 소우주이며 더 큰 사회가 가족의 진실체라고 보고 있다. 사회가 억압과 강제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족의 연구에서도 억압이나 권력,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가족성원들간의 이해관계를 탐색함에 있어 갈등이론이 적용된다고 본다(김양희, 1993). 실제로 자원과 권력, 권위는 가족갈등의 주요 속성으로 여겨져 왔다. 자원은 사회체계에서 구성원, 연령, 성 등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는데 가족 내 존재하는 자원의 차이로 인해 어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원 불공평성은 가족원들로 하여금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하므로, 가족은 협동하기보다는 경쟁하게 된다(Klein et al., 1996).

그러나 구조적 갈등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회와 가족은 분리되어 분석되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고 본다. 즉, 가족과 같은 사회적 집단은 집단의 개인 내 갈등과 개인간 갈등을 구조적으로 초래하므로 집단의 구조(구성원, 연령, 성)와 상황의 구조(경쟁과 협동)에 따라서 갈등의 정도는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부부만의 가족, 한 명의 아이가 있는 가족, 두 아이가 있는 가족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Klein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고려한 변증법적 갈등이론과 부부관계나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는 구조기능적 갈등이론에 근거해 노년기 부부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년기 부부갈등

가족의 형성에서 해체까지의 가족주기 전 과정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초기에 가장 높다가 자녀양육

기를 거치면서 낮아지게 되고, 노년기가 되면서 다시 상승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년기는 일상의 관심에서 자녀의 비중이 약해지며 부부간 친밀감이 증폭되고 옛날 혹은 새로운 관계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김태현, 1998). 따라서 노년기는 자녀 양육기때의 갈등을 극복하고 결혼만족도를 회복해가는 시기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자원의 축소, 심리적, 경제적 자원의 감소,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자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년기 부부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의 자원 감소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힘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 부정적 부부관계 즉, 부부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배우자와 협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전길양 등, 1998).

자원과 관련된 부부갈등 양상과 함께 기본적으로 성차별적 갈등을 전제로 하는 노년기 부부관계는 나아가 권력이나 역할에서의 갈등을 포함하는 매우 경쟁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부장제는 남존여비, 부부유별을 강조하면서 부부관계에서의 남녀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이런 분위기속에서 차별받던 노년기 부인은 당연히 권력투쟁적 관점에서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지향하는 남녀평등적 부부관계는 억압받고 살아온 노년기 부인에게 있어 또다른 갈등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를 원하는 부인과 마지못해 조금씩 변화로 다가가는 남편과의 불일치는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전길양 등, 1998).

따라서 노년기는 빈약한 수준의 경제적, 심리적 자원 속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복합적 갈등구조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역할, 권력 등 관계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자원과 권력상호작용의 역동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노년기 부부갈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

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실시된 노년기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 부부는 오랜 공동생활 동안 나름대로 갈등을 회피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해 왔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년기 부부갈등을 다룬 전길양 등(1998)의 연구에 따르면 노부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평균 점수는 중간점 이하로 나타났고, 김제엽, 김동배, 최선희(1998)의 연구에서도 노인 부부의 갈등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엽(1998)은 부부폭력을 부부갈등의 실체로 파악하였는데 우리나라 노인 부부의 갈등은 부부폭력이란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어떠한 측면에서 발생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갈등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길양 등(1998)은 노부부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갈등영역을 부부간의 성격문제,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문제, 성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성격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성문제로 인한 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체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한 느낌으로 정의되고 있다(김경애, 1998; Meeberg, 1993). 또한 현재상황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김태현, 1998). Neugarten(1968)은 생활만족도 지표를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는데, 첫째로 생에 대한 만족도, 둘째로 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도, 셋째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성취감, 넷째로 긍정적인 자아상, 다섯째로 낙관적인 태도 등이다. Medley(1976)는 생활만족도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감정이라 정의하면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신화용, 조병은(2001)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경애, 1998; Adelman, 1994). 김지훈(1997)은 농촌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생활만족도를 생활영역에 관한 만족과 전반적 행복감으로 조사하였는데, 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중앙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행복감은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완규(1994)의 지적대로 노인들이 구체적 생활형편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주변의 노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교적 좋다고 생각하며 자위하려는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윤에스더(1999), 강윤주(1997)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생활만족도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윤에스더, 1999; 신화용 등, 2001; Adelman, 1994)과 노년기 남편은 부인보다 더 높은 생활만족도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김지훈, 1997; 정인숙, 2000; Krause, 1991). 한편,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책도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활동의 폭도 넓어지게 되어,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애, 1998; 박은숙, 김순자, 김소인, 전영자, 이평숙, 김행자, 한금선, 1998; 윤종희, 이혜경, 1997).

또한 노인의 경제적인 상태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노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직, 간접적인 원인으로 경제적인 힘의 약화를 꼽고 있다(정인숙, 2000).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입은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노인이 가질 수 있는 가

장 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경제적 생활수준은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다(김지훈, 1997; 정인숙, 2000; Ardel, 1997; Krause, 1991). 한편 노년기에는 개인적 활동보다는 집단적 활동을 통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2000; Ardel, 1997).

2) 관련 변인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데(김유경, 2000; 박은숙 등, 1998; Ardel, 1997), 이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 감소되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여겨 생활에도 만족하기 때문이다(김경애, 1998). 같은 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숙 등, 1998; 윤종희 등, 1997; 정인숙, 2000).

친밀감이란 서로 의존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정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개인의 능력으로(Whitbourne & Cassidy, 1995),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의 정도는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데(Cohen & Hoberman, 1983), 노년기 부부에게 노후생활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영자, 1999).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의 영향력을 완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서병숙, 이현, 1995; Bowling & Browne, 1991).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원천으로(Shanas, 1979), 노부모가 인지하는 자녀 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김유경, 2000; 김지훈, 1997; 윤종희 등, 1997).

3) 부부갈등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여부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Medly, 1977). 은퇴로 인해 사회활동의 폭이 좁아지고, 자녀의 출가로 부모자녀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배우자는 남은 생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는 유일한 동반자가 된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갈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Townsend, & Franks, 1997) 노년기에는 부부의 심리적, 관계적 자원이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젊은 부부들과는 다른 양상을 경험할 수 있다. 부부관계의 질은 결혼한 노년 여성의 외로움을 설명하는 중요 변인으로, 결혼한 여성노인은 남편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중에 이 관계에 의해 그들의 세계와 그들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Essex, & Nam, 1987).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노인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생활만족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

강주령(1990)의 연구에서도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높을수록 노년기 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부인 각각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관련 변인, 부부갈등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 전공자를 통해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신뢰도 평가를 위해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산출하여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질

문지를 작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노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종교, 수입, 직업, 가족형태, 사회활동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2) 관련변인

관련변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친밀감, 자녀 지지, 친지 지지 등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Cronbach' α 계수는 .73이었다.

친밀감은 Townsend 등(1997)의 부부간 친밀감 척도를 이용해 문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 α 계수는 .85였다. 자녀지지는 Bengtson과 Culter(1976)가 제시한 세대간 유대관계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고, 강주령(199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자녀와의 왕래정도, 물심양면의 지원정도, 자녀와의 관계를 묻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Cronbach' α 계수는 .76이었다. 친지지지는 친구, 친척과의 왕래정도, 물심양면의 지원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Cronbach' α 계수는 .74였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s(1989)의 부부관계유형을 기초로 한 이경희(1998)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4개의 하위영역,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갈등은 개인특성 영역, 부부관계 영역, 공동생활 영역, 제삼자관련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개인특성 영역에서는 성격이나 가치관, 생활습관 등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의 정도를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부부관계 영역에서는 성생활에서의 갈등, 애정이나 관심의 부족 등과 같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공동생활 영역에서는

금전관리나 소비상의 문제, 가사노동분담, 주거문제 등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의 정도를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제삼자관련 영역에서는 친·인척관계, 자녀·손자녀의 문제, 사회 활동이나 직업상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83이었다.

4) 생활만족도

Olson과 Barner(1982)의 Quality of Life, 김오남(1998)의 연구를 참고로 결혼생활만족, 건강만족, 경제상태만족, 자녀와의 관계만족, 여가생활만족, 이웃 및 주변환경만족, 현재 나의 위치와 역할만족, 친·인척 관계만족,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만족 등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85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부부 218쌍, 4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남편과 부인 모두 60세-65세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이 남편의 27.5%, 부인의 3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의 59.2%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인의 61.5%가 직업이 없었다. 수입은 50만원이하가 24.8%, 51-80만원이 19.7%였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0.3%, 확대가족이 19.7%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와 면접 방법 및 면접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학생 면접자가 각 가정을 다니면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노인 부부 각각에 대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2000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노부부 20쌍,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남 편	부 인
		N (%)	N (%)
연령	60세-65세	97(44.5)	145(66.5)
	66세-70세	66(30.3)	52(23.9)
	71세 이상	55(25.2)	21(9.6)
교육 수준	무학	10(4.6)	38(17.4)
	서당	19(8.7)	6(2.8)
	초등학교졸	60(27.5)	85(39.0)
	중졸	35(16.1)	49(22.5)
	고졸 대졸 이상	55(25.2) 39(17.9)	32(14.7) 8(3.7)
종교	없음	101(45.9)	51(23.4)
	있음	117(54.1)	167(76.6)
직업 유무	무	89(40.8)	134(61.5)
	유	129(59.2)	84(38.5)
수입	50만원 이하	54(24.8)	52(24.8)
	51-80만원	43(19.7)	43(19.7)
	81-110만원	32(14.7)	32(14.7)
	111-140만원	24(11.0)	24(11.0)
	141-170만원	22(10.1)	22(10.1)
	171-200만원 201만원이상	18(8.3) 25(11.5)	18(8.3) 25(11.5)
가족 형태	핵가족	175(80.3)	175(80.3)
	확대가족	43(19.7)	43(19.7)

자료의 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는데, Cronbach' α ,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paired-t test, Pearson's correlation,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노년기 부부의 갈등 및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노년기 부부의 갈등 및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과 부부집단간 차이는 <표 2>와 같다.

부부갈등의 전체점수는 남편이 2.70, 부인이 2.83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 중간점인 3점보다 다소 낮

〈표 2〉 노년기 부부의 갈등,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집단간 차이

		남 편	부 인	paired-t
		M (SD)	M (SD)	
부부 갈등	개인특성 영역	3.06(0.65)	3.36(0.67)	-7.31***
	부부관계 영역	3.08(0.63)	3.08(0.65)	0.05
	공동생활 영역	2.46(0.79)	2.53(0.77)	-1.44
	제삼자관련 영역	2.38(0.78)	2.48(0.78)	-2.19*
	전 체	2.70(0.56)	2.83(0.56)	-4.41 ***
생활만족도		3.18(0.60)	3.08(0.57)	3.31 **

* p<.05 ** p<.01 *** p<.001

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전길양 등(1998), 김재엽 등(199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인이 남편보다 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년기 부부 갈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변화순, 1997; 전길양 등, 1998), 부인은 남편보다 여전히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의 각 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개인특성 영역, 부부관계 영역에서 중간점보다 높은 갈등수준이 나타났고, 공동생활 영역, 제삼자관련 영역은 중간점보다 낮은 갈등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 부부는 공동생활이나 부부이외의 타인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보다는 배우자 개인의 특성이나 부부관계상 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역별 부부 집단간 차이를 보면, 개인특성 영역과 제삼자관련 영역에서 남편과 부인간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는데, 부인이 성격이나 가치관, 자녀문제나 친인척 문제로 인한 갈등을 남편보다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남편, 부인 모두 중간점인 3점을 조금 넘어 중간정도의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만족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난 이 인정(1999)의 연구나 중간정도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낸다는 김지훈(1997)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생활만족도의 부부간 차이를 보면, 남편이 부인보다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의 부부간 상관관계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의 부부간 상관관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남편의 전체 부부갈등과 부인의 전체 부부갈등간

〈표 3〉 부부갈등 및 생활만족도의 부부간 상관관계

남편 \ 부인	1	2	3	4	5	6
1. 개인특성 영역 갈등	.58***	.19**	.35***	.27***	.48***	-.43***
2. 부부관계 영역 갈등	.17*	.32***	.27***	.29***	.34***	-.22**
3. 공동생활 영역 갈등	.30***	.13	.58***	.53***	.57***	-.24***
4. 제삼자관련 영역 갈등	.33***	.23***	.47***	.66***	.61***	-.36***
5. 전체 부부갈등	.46***	.26***	.57***	.61***	.68***	-.40***
6. 생활만족도	-.34***	-.19**	-.23***	-.20**	-.33***	.69***

* p<.05 ** p<.01 *** p<.001

상관은 .68로 나타나 부부간의 갈등 인지수준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각 영역별 결과에 따르면, 개인특성 영역이 .58, 부부관계 영역이 .32, 공동생활 영역이 .58, 제삼자관련 영역이 .66으로 각 영역에서 부부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부부간 상관은 .69로 나타나 남편의 높은 생활만족도는 부인의 높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부인의 전체 부부갈등 및 갈등의 각 영역과,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남편의 전체 부부갈등 및 갈등의 각 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갈등인지 수준이 낮을 때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관련변인 및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모

델 2에서는 관련변인을 포함시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델 3에서는 배우자가 인지하는 부부갈등을, 모델 4에서는 본인이 인지하는 부부갈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3과 모델 4에서는 부부갈등의 부부간 상관이 높아 각 변인을 단독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계수는 남편, 부인 모두 1점대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1.86-2.02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의 영향은 다음 <표 4>와 같다.

모델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시되었다. 사회활동정도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 변량의 8%를 설명하고 있다. 모델 2에서는 관련변인이 추가 분석되었는데,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델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사회활동정도는 모델 2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델 3에 따르면, 부인이 인지한 부부갈등정도는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4에 따르면 남편

<표 4>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교육수준	.04	.08	.02	.04	.01	.03	-.00	-.01
	수입	.02	.08	.01	.05	.02	.05	.01	.05
	사회활동정도	.13	.21**	.03	.04	.03	.05	.03	.04
관련 변인	주관적건강상태			.11	.13*	.09	.11*	.11	.12*
	자아존중감			.28	.26***	.27	.26***	.27	.26***
	친밀감			.14	.16**	.10	.12*	.05	.06
	자녀 지지			.23	.26***	.21	.24***	.19	.22***
	친지 지지			.17	.19***	.20	.22***	.20	.22***
부인 인지 부부갈등						-.12	-.11		
남편 인지 부부갈등								-.29	-.26***
Adjusted R ²		.08		.47		.48		.52	
F		7.20***		25.21***		23.12***		27.34***	

* p<.05 ** p<.01 *** p<.001

본인이 인지한 부부갈등은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녀지지, 친지지지, 본인이 지각한 부부갈등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나 친지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은 52%의 설명력을 갖는다.

모델 2는 모델 1보다 설명력이 39% 증가하여 관련변인이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인인지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고, 모델 2에서 모델 4로의 설명력 증가를 볼 때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부인의 부부갈등인지도보다 본인의 부부갈등 인지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의 영향은 다음 <표 5>와 같다.

모델 1에 따르면 수입과 사회활동정도가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은 1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2에서는 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친밀감, 자녀지지, 친지지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들

은 49%의 설명력을 갖는다. 부부갈등이 포함된 모델 3과 4에 따르면 남편이 지각한 갈등과 본인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남편과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녀 및 친지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배우자나 본인이 인지한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와 달리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배우자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본인이 인지한 부부갈등보다 남편이 인지한 부부갈등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나 친지의 지지,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이 인지한 부부갈등이 부부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남편의 생활만족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의 생활만족도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부인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난 수입, 친밀감, 배우자의 부부갈등 인지도는 남편의 경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 증가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관련변인의 영향력이 부부갈등의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볼 때,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

<표 5>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교육수준	.07	.12	-.03	-.06	-.04	-.08	-.04	-.08
	수입	.06	.22**	.06	.24***	.06	.24***	.06	.24***
	사회활동정도	.11	.17*	.02	.03	.01	.02	.02	.03
관련 변인	주관적건강상태			.14	.16**	.11	.13**	.11	.13**
	자아존중감			.06	.06	.03	.03	.05	.05
	친밀감			.21	.28***	.16	.21***	.16	.21***
	자녀 지지			.17	.19***	.16	.18**	.16	.18**
	친지 지지			.20	.25***	.21	.27***	.22	.28***
남편 인지 부부갈등						-.21	-.20***		
부인 인지 부부갈등								-.19	-.18**
Adjusted R ²		.15		.49		.52		.51	
F		14.01***		26.58***		26.52***		26.01***	

* p<.05 ** p<.01 *** p<.001

족도에는 자녀 및 친지의 사회적 지지나 개인적 변인 및 긍정적 부부관계 변인들이 부정적인 부부관계 변인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인지한 부부갈등 영향력의 경우 남편에게서는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고, 또한 남편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부인의 경우 친밀감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개인적 변인보다는 관계변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은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부의 경우 시장보기 등의 가사역할분담이나 일상생활비 관련 의사결정 등을 대부분 부인이 주로 책임지고 있어(손승영, 1997) 노년기의 주요 자원이 되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인의 경우 소비 및 지출 등 경제활동의 주요 수단이 되는 수입이 생활만족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박은숙 등(1998), 윤에스더(1999), Ardelt(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친지나 자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노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유경(2000), 김지훈(1997) 등과 일치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부부간 상관을 살펴보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부부 218쌍 43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부부갈등은 부부 모두 중간점인 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부부는 여러 차원의 자원감소로 인해 다양한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전통적 가부장제하에서 생활해온 우리나라 노부부의 경우는 자원분배나 권력의 문제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더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부부의 경우 부부갈등 발생시 보통은 참거나 체념하기, 또는 포기해버리기 등의 갈등해결방법을 사용하며(김태현, 김미혜, 이영자, 김애순, 1998; 변화순, 1997), 순응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부부갈등의 공식적 표출은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노년기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 나름대로 적응하고 순응하는 방법을 개발, 사용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요인이 많이 완화되었을 수도 있다(전길양 등, 1998; 김재엽 등, 1998).

그러나 부부갈등의 각 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개인특성 영역과 부부관계 영역의 갈등수준이 중간점 이상으로 나타나 성격이나 생활습관 등의 개인특성 영역과 부부관계 영역은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갈등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활만족도는 부부 모두 중간이상의 생활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 부부집단간 차이를 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개인특성 영역과 제삼자관련 영역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부부갈등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가부장제하에서 성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 온 노년기 부인의 자연스러운 갈등 표출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억압받아 온 부인은 부부관계 및 남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남편보다 민감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인지하면서 갈등이 더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과 맥을 같이하여 생활만족도의 경우도 부인이 남편보다 더 낮은 생활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남성 위주의 가정문화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어 남성들

의 만족도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여성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므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 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직장이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등 노후에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Liang, 1982) 부인은 남편보다 높은 수준의 갈등을 인지하며 낮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남편의 부부갈등과 부인의 부부갈등간 상관도는 .68로 나타났고, 부부간 생활만족도의 상관도 .69로 나타나 노년기 부부의 갈등 및 생활만족도는 배우자의 갈등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부인의 갈등과,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남편의 갈등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이 낮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자녀나 친지의 지지,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이 인지하는 부부갈등이 부부 모두에게서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은 자아존중감이, 부인은 수입, 친밀감, 남편 인지 부부갈등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지 등 관련변인의 영향력이 부부갈등보다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보다 부자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전통 가족구조하에서 생활하여온 노년기 부부에게 자녀나 친지와 사회적 관계는 부정적인 부부관계보다 삶의 만족에 우선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체제하에서 부정적 부부관계와 관련된 부부갈등은 무시되거나 묵인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부갈등의 인지 정도가 중간점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친지와 자녀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삶의 사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시킨다는 연구(이인정, 1999)를 볼 때,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이 인지한 부부갈등은 부인의 생활만족도에서 만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이 인지한 부부갈등은 남편과 부인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갈등 상태는 남편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인의 생활만족도만을 낮추나, 남편의 부부갈등인지는 남편 자신뿐 아니라 부인의 생활만족도까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은 하늘, 부인은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노부부에게 남편의 부부갈등 인지는 당연히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나 상대적으로 부인의 갈등인지는 억압되거나 무시되어오면서 남편에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남편이 인지하는 부부갈등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인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수입, 친밀감, 배우자인지 부부갈등은 남편의 경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편은 부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풍부할 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나 부인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될수록, 남편과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갈등인지 정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부인은 남편보다 부부관계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부부갈등 인지도가 남편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을 할 때는 부부의 변인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신뢰, 사랑, 돌봄, 가치감을 보장받을 때 강화된다는(Krause, 1987) 것을 고려해보면 남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및 사회의 적극적 개입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부부는 남편보다 부인이 갈등을 더 많이 느끼며, 생활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부인의 의식구조가 평등의식을 수용하려하나 전통적 가부장제의 지속으로 인해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데서 오는 갈등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인지 부부갈등만이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부부 특히 남편들을 대상으로 가치관의 변화와 평등한 부부관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부부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년기는 활동능력이 떨어지고 수동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관 분석에 따르면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의 배우자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부부갈등은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배우자 상호간에 부부갈등을 줄이고 부부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지금까지의 부부관계 등을 과감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부부갈등 인지도가 부부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남편의 부인에 대한 태도 변화나 의식 변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친지와 자녀의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나 친밀감, 수입 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가족내 사회경제적, 관계적 자원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접근이 모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 서비스 및 건강

정보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노년기 부부의 수입증진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지 및 자녀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노년기 부부가 물질적, 심리적, 관계적 측면에서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노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둘째,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노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였으나 노인의 특성상 심층 면접을 통한 분석이 좀 더 정확한 자료수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미선(1991).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윤주(1997). 노년기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강주령(1990).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1998).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3). 가족학 연구와 갈등이론적 접근.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미시이론을 중심으로-, (113-152). 서울: 교문사.
-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경(2000). 세대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1998). 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18(1), 170-183.
- 김재엽, 김동배, 최선희(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 18(3), 103-122.

- 김지훈(1997). 농촌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성인자녀 관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98).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태현, 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 김태현, 김미혜, 이영자, 김애순(1998).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1986). 갈등의 사회학. 서울: 까치.
- 박은숙, 김순자, 김소인, 전영자, 이평숙, 김행자, 한금선(1998).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건강관리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3), 37-61.
- 변화순(1997).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217-253).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변화순(1999). 노인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33-70),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서병숙, 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도시와 농촌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손승영(1997).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255-292),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신화용, 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윤에스터(1999). 노인의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희, 이해경(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참여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17(1), 289-304.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1997).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70-85.
- 이영자(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건강,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35-50.
- 전길양, 임선영(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6), 1-12.
- 정인숙(2000). 노인의 원인귀속유형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생활만족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완규(1994).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4, 73-96.
- 통계청(2002). 생명표.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02).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 Adelmann, P. K. (1994).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6), s277-s285.
- Allen, K. R., Blieszner, R. & Roberto, K. A. (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11-926.
- Ardelt, M. (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52(1), p15-p27.
- Bengtson, V. L., & Culter, N. E. (1976).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In Binstock, R. M. & Shanas, E.(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Y: Van Nostrand Reinhold Co.
- Bowling, A., & Browne, P. D. (1991). Social network,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the oldest old in London. *Journal of Gerontology*, 46(1), s20-s32.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79-125.

Essex, M. J., & Nam, S. (1987) Marital status and loneliness among older women: The differential importance of close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 93-106.

Klein, D., & White, J. (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London: Sage.

Krause, N. (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 349-356.

_____ (1991). Stressfu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6(2), s84-s92.

Liang, J. (1982). Sex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7, s226-s230.

Marks, N. F. (1996).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4), 917-932.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5.

Meeberg, G. A. (1993). Quality of lif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32-38.

Neugarten (1968). The awareness of middle age. In B. 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93-9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lson, D. H., & Barnes, H. L. (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Shanas, E. (1979). Social myth as hypothesis: The case of the family relations of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9, 3-9.

Townsend, A. L., & Franks, M. M. (1997).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pouses: Influence on spouse caregivers' subjective effectiveness. *Family Relations*, 46, 33-39.

Whitbourne, S. K., & Cassidy, E. L. (1995). Achieving intimacy in late-life marriages. In Smith G. C., Tobin, S. S., Robertson-Tchabo, E. A., Power, P. W.(Ed.) *Strengthening aging families-diversity in practice and policy*. Beverly Hills, C. A. :Sage.

(2002년 2월 27일 접수, 2003년 1월 7일 채택)

<부록> 남편과 부인의 변인간 상관관계

남편	부인			사회인구학적						관련 변인		갈등	만족
	1	2	3	4	5	6	7	8	9	10	11		
1. 교육수준		.49***	.35***	.19**	.24***	.27***	.17*	.23***	.24***	-.12	.30***		
2. 수입	.54***		.44***	.20**	.23***	.04	.12	.19**	.13	-.09	.35***		
3. 사회활동정도	.52***	.37***		.21**	.15**	.13*	.16*	.28***	.27***	-.13	.31***		
4. 주관적건강상태	.10	.17*	.19**		.23***	.14*	.05	.10	.16*	-.22**	.33***		
5. 자아존중감	.24***	.19**	.25***	.24***		.35***	.08	.24***	.27***	-.21**	.35***		
6. 친밀감	.16*	.14*	.18**	.14*	.29***		.29***	.38***	.33***	-.41***	.48***		
7. 여가공유도	.15*	.18**	.21**	.13	.13	.29***		.25***	.23***	-.09	.15*		
8. 자녀 지지	.16*	.01	.19**	.20**	.21**	.47***	.29***		.47***	-.20**	.49***		
9. 친지 지지	.10	.00	.15*	.19**	.33***	.31***	.20**	.40***		-.06	.50***		
10. 갈등(전체)	-.21**	-.12*	-.15*	-.09	-.12	-.42***	-.09	-.31***	-.07		-.38***		
11. 생활만족도	.26***	.20**	.28***	.32***	.48***	.46***	.17**	.51***	.47***	-.40***			

* p<.05 ** p<.01 *** p<.001